

찬 송 ...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구 434장) ... 다 갈 이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 기도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지침

- ① 각 가정의 신앙 세대주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 ②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 ③ 수고한 농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 ④ 예배 후에 음식을 장만하여 가족, 친척, 이웃과 함께 교제합니다.

추 석 감 사 예 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338-146
☎ 374-6161, 374-6168(FAX) www.sjch.kr

예 배 순 서

예배의 부름 시편 1:1-6 인 도 자

찬 송 ...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구 308장) ... 다 같 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뒀던 모든 알곡 천국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 하겠네
- 후렴)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 도 공동기도(혹은 가족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

금년에도 때를 따라 햇빛을 내려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하셔서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산을 옮길만한 큰 믿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오늘 중추절을 보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합 3:17-18 인 도 자

¹⁷⁾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¹⁸⁾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설 교『하나님의 은혜』..... 인 도 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추석(秋夕)은 정월 명절과 더불어 한국에서 제일 큰 명절입니다. 민속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하박국의 감사의 찬양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시 그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다. 그에게는 식량이 없었고, 그가 맺고자 하던 열매들은 결실치 못하였으며, 그의 민족은 이방 포로가 되어 학대를 받고 있었고, 슬픔, 비통, 아픔과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실은 조금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러한 악조건 하에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조그마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합 3:17~18)

풍성한 선물과 식탁을 나누어야만 명절을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친지들과의 소중한 만남,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회복,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예배.....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이 가을 더욱 더 감사가 넘치는 기쁜 명절을 보내도록 합시다.